

## 1. 음운변동

- 연음은 음운변동이 아니다
- 자음군 단순화(자단; 탈락) ≠ 음절의 끝소리 규칙(음끝규; 교체)
- 음운변동을 설명할 때는 표기상 음운과 발음상 음운으로 나뉜다.
  - 좇[죵]
    - 표기상 음운: ㅈ, ㅊ, ㅉ
    - 발음상 음운: ㅈ, ㅊ, ㅊ

⇒ 따라서 교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음
- 교체(AB→AC)
  - 음끝규
    - 음절 끝에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 7개 중 하나로 교체
    - 가느다란명박이
    -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되므로 ‘박→[박]’은 자단이 아니라 음끝규
  - 비음화
    - ‘ㄱ, ㄷ, ㅂ’ + ‘ㄴ, ㅁ’ → ‘ㅇ, ㄴ, ㅁ’ + ‘ㄴ, ㅁ’
      - ‘약마[양마]’, ‘받느[반느]’, ‘밥만[밤만]’
    - ‘ㅁ, ㅇ’ + ‘ㄹ’ → ‘ㅁ, ㅇ’ + ‘ㄴ’
      - ‘김승리[김승니]’, ‘담력[담녁]’
    - ‘ㄱ, ㄷ, ㅂ’ + ‘ㄹ’ → ‘ㅇ, ㄴ, ㅁ’ + ‘ㄴ’
      - ㄹ이 ㄴ이 되고 앞 ㄱ, ㄷ, ㅂ는 각각 ㅇ, ㄴ, ㅁ이 됨
      - 백로[백노→뱅노], 합리[합니→함니]
  - 유음화

- ㄴ이 'ㄹ' 앞/뒤에서 'ㄹ'로 교체
    - 신라[실라], 실내[실래]
  - 구개음화
    - ㄷ, ㅌ + ㅣ /반모음 ㅣ 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→ ㅈ, ㅊ
    - 굳이[구디→구지], 같이[가티→가치], 붙여[부터→부쳐→부처]
  - 된소리되기(경음화)
    - 받침 ㄱ, ㄷ, ㅂ + 평음 'ㄱ, ㄷ, ㅂ, ㅅ, ㅈ' → 받침 + 'ㄱ, ㄷ, ㅂ, ㅅ, ㅈ'
    - 국수[국쑤], 했다[헨다→헨따], 입지[입찌], 몯을[몯술→몯쓸]
    - 어간 끝 'ㄴ, ㅁ' + 'ㄱ, ㄷ, ㅂ, ㅅ, ㅈ'로 시작하는 어미
      - 신고[신꼬], 감다[감따]
    - \* 자음군단순화를 고려하는 경음화의 경우 구체적인 순서를 물어보지는 않음.
      - 즉 '닭지'의 경우 [닭지→담지→담찌]로 봐도 [닭지→닭찌→담찌]로 봐도 큰 문제는 없고 경음화와 자단 둘 다 일어난다는 것만 알면 됨.
      - '읽고'도 마찬가지. [읽고→일고→일꼬]로 보는 견해도, [읽고→읽꼬→일꼬]로 보는 견해도 존재. 사족이지만 후자가 합리적
  - 첨가(AB→ACB)
    - ㄴ 첨가
      - 합성어 및 파생어 혹은 구 구성에서,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/접두사 + 'ㅣ, ㅏ, ㅑ, ㅓ, ㅕ, ㅠ'로 시작하는 단어/접미사 → ㄴ이 첨가됨

- 색-연필[색년필→생년필], 맨-입[맨닙], 솜-이불[솜니불], 식용-유[시공뉴]

- 탈락(ABC→AC)

- 자음군단순화

- 겹받침이 발음될 때 그 두 개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
- 겹받침은 연음될 경우 받침의 두 자음 모두 발음된다. 즉 겹받침의 음운을 하나로 볼 이유가 없다. 따라서 음운이 두 개이니 그 겹받침이 다른 홀자음으로 바뀔 경우 탈락으로 보게 된다
- 값[갑], 샷[삭], 등

- ㅎ 탈락

- 용언 어간 말음 ㅎ +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→ ㅎ 나가리
- 좋아[조아], 달아서[다아서], 많이[마니], 꿩어[끄러]
- \* 자음군단순화와 다르다
  - 자단은 자음 앞이나,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앞에서.
  - 즉 ‘꿩는[꿀는→꿀른]’은 자단을 겪어 ㅈ이 ㄴ 앞에서 자단을 겪어 ㄹ이 되고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된 것이다.
  - 그러나 ‘꿩어[꿀허→끄러]’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것이므로 연음이 될 환경이다. 즉 ㅎ이 연음되고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. 한 뭉탱이인 자음군 내에서 하나가 탈락한 게 아니라 다음 음절로 넘어간 다음에 탈락한 거라 자단으로 볼 수 없다.

- 모음탈락

- 발음뿐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

■ — 탈락

- —로 끝나는 어간 +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→ — 탈락
- 바쁘- + -아서 → 바빠서

■ 동일 모음 탈락

- ㅏ/ㅑ로 끝나는 어간 + ‘-ㅏ/ㅑ’로 시작하는 어미 → ㅏ/ㅑ 탈락
- ‘가- + -아’ → ‘가’, ‘서- + -었- + -다’ → ‘섰다’
- 어간의 ㅏ가 탈락한 건지 어미의 ㅏ가 탈락한 건지 알 필요 없음

● 축약(ABC→AD)

○ 거센소리되기(격음화)

■ ㄱ, ㄷ, ㅂ, ㅈ + ㅎ → ㅋ, ㅌ, ㅍ, ㅊ

■ 각하[가카], 말형[마텃], 입학[이팍], 잊히다[이치다]

- ㅈ의 경우 음끝규를 한 후 격음화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학교문법은 간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는 잉여적이고 비합리적임. 17수능에선 국국원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음끝규 & 격음화로 본 사람들이 있었으나 국국원의 병크였고 평가원은 ㅈ+ㅎ을 ‘ㄷ+ㅎ→ㅌ’으로 보지 않고 ‘ㅈ+ㅎ→ㅊ’으로 봄. 자세한 사항은 꺼무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 7문단 참고

● 반모음에 관해서

○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

○ 모음 축약 vs 반모음화(교체)

- 애는 최근 반모음 교체로 보는 경향이 있음. 제시된 지문을 잘 따라가자. 이런 논란이 되는 놈들은 항상 지문에서 명시를 해 주니

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면 교체로, 그렇지 않으면 축약으로 보아야 한다

■ 오았다 → 왔다

- ㅛ + ㅏ → ㅑ (이 경우, 음운 개수가 줄었으니 축약)
- ㅛ + ㅓ → 반모음 /w/ + ㅓ (이 경우, 음운 개수가 그대로니 교체)

○ 이중모음화(교체) vs 반모음 첨가

- 최근에 첨가로 보는 경향이 있음. 그러나 역시 지문을 잘 살피자.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제시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음
- 피어[피어/피여]에서의 [피여] 분석
  - ㅣ + ㅓ → ㅣ + ㅕ (음운 개수가 그대로니 교체)
  - ㅣ + ㅓ → ㅣ + 반모음 /j/ + ㅓ (음운 개수가 늘어났으니 첨가)

○ 단모음화(교체) vs 반모음 탈락

- 저, 쨌, 처의 발음은 각각 [저], [쨌], [처]이다. 이 역시 반모음의 음소 인정 여부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
- 저서[저서]
  - ㅓ → ㅓ, 교체
  - 반모음 /j/ + ㅓ → ㅓ, 탈락

2. 형태소

3. 문장성분

4. 태(態): 피사동

5. 활용

6. 표임법